

데스크 탑



최진화 체육부장

인구 45억 명이 사는 아시아 대륙의 최대 스포츠 축제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릴 앞으로 다가왔다.

1만 명이 넘는 선수들은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7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 두 지역에서 열리는 40개 종목, 465개 세부 경기에서 메달 경쟁을 벌인다.

올해로 18번째인 하계 아시안게임은 적도에 걸친 섬나라 인도네시아에서 56년 만에 다시 열린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이다. 원래 제18회 아시안게임은 인도네시아가 아닌 베트남에서, 2018년이 아닌 2019년에 개최 될 예정이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서 기존의 아

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해에 동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이 같이 개최되면 흥행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하계 올림픽보다 1년 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이 경제적 이유로 2019년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개최지가 자카르타로 변경됐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2018년 대회 개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OCA가 받아들여지면서 2018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됐다.

아시안게임을 향한 노력

아시안게임은 지구촌 최대 잔치 하계 올림픽에 이어 참가 선수단의 규모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 종합대회다.

1998년 방콕 대회 이래 6회 대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트럼프로 하는 두뇌 게임인 브릿지를 제외한 39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960명을 파견한다.

대표팀선수들은 7일 결단식을 갖고 종목별로 자카르타를 향해 출발한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가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운동선수들의 꿈은 올림픽 메달이요, 이에 앞서

99%의 노력 1%의 운

아시안게임 메달이다. 꿈과 목표를 위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 자신을 밀어넣으며 훈련해왔고,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세계 최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메달을 위해, 또 메달권과는 거리가 먼 선수들도 자신의 최고기록, 또는 한국신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내해왔다. 후회하지 않을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을 것이다.

육상만 해도 그렇다. 한국은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일본에 밀려 있는게 사실이다. 대부분 메달권이 아니다. 한국 간판 스프린터 김국영의 경우 최근 몇년간 국내에서 경쟁자 없이 홀로 외로이 기록 단축을 해왔다. 눈 깜짝할 동안의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는 뛰고 또 뛰고 있다.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대표선수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물론 수많은 경쟁자와 벌이는 도전을 하게 된다.

아쉽게도 피나는 노력만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99%의 노력을 기울여왔어도 1%의 다른 변수로 인해 상황이 바뀌기도 한다. 변수는 많다. 날씨, 환경, 몸상태, 경쟁자 등 어느 것에서 영향을 받을 지 알 수가 없다.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 훈련을 해왔지만 그 변수로 인해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다.

최고의 노력만으로 금메달을 딸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성실한 모습으로 노력한다면, 결과보다 성실한 과정을 유지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그것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모든 선수들이 99%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1%의 운이 필요하고 대표선수들에게도 전달이 되길 바란다.

기대만큼 값진 결실 맺길

광주·전남 출신이거나 소속인 선수들도 65명이나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광주에서는 여자하들 정혜림(광주시청), 여자유도 김성연(광주도시청도공사), 축구 나상호(광주FC)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에는 불링남매 김현미(곡성군청)·최복음(광양시청), 여자역도 문유라(보성군청) 등이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 상냥에 나선다.

쉽지 않은 길을 걷고있는 대표선수들이 자카르타에서 값진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든 기본좋은 성적표가 폭염으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청량제가 되어주길 바란다.

기고



이승호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사상 유례없는 고용쇼크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고용절벽 또는 고용쇼크라는 단어도 자주 듣다 보니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 10만명 선으로 떨어진 이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하다 5월에는 이마저도 무너져 버렸다. 이는 2008년 최악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9월부터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한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광주지역은 전체사업장 5만4천여개 중 99.23%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소위 관찮은 일자리가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광주·전남 지역의 금년 6월 청년고용률은 수도권(46.7%)에 비해 광주가 40.8%, 전남이 34.7%로 매우 낮은 편이다. 청년실업률도 광주가 8.3%, 전남지역이 13.8%로 전국평균 10.1%와 비교하면 다소 낮거나 높지만 이는 광주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의 악화원인은 예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도 맞물려 있다. 2021년까지 예코세대인 20대 인구의 일시적 증가와 대학진학률이 최고시점('08-'10년)에 입학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맞물리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3~4년간이 청년취업의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 청년일자리 점진회의에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탈출구를 찾는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17년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건복지포럼에 의하면 일을 하거나 구직중인 청년 3명중 1명꼴로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고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4세의 경제활동 인구중에서 일을 해도 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이들의 비중이 2015년 기준 37.1%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 34.2%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20대에 빈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30~40대가 되어도 다시 빈곤 상태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소득보전 정책을 통한 취업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소득보전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근로소득세 감면, 주거임대료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장기근로자재형저축 부활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임대주택의 보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등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고용중대세제 혜택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 진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소득보전 정책은 물론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정규직 임급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임금구조 이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인재확보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투자가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선 7기 일자리 시장을 표방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정책 가운데 3건이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일자리 창출만이 현재 광주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인구유출,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어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이 실현되는 활기찬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고



윤종찬 광주체육중학교 교감·이학박사

최악의 폭염이 연일 전국을 달구며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2018 일본-광주 양궁문화교류 행사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됐다. 스포츠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일본 국가대표 양궁감독과 임원 및 국가대표 선수단을 포함해 실업팀과 대학선수 등 130명이 한국 양궁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이들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자체 훈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

련을 실시하며 광주시청과 광주여대 팀 등 광주 선수단과 교류전을 함께 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거리, 양림동 펜션마을, 롯데백화점 및 롯데 아울렛 쇼핑, 송정역 시장 등을 둘러봤다.

일본 선수단의 6일간의 광주 체류는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물론 민주화의 성지이자 예향 도시인 광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발 닿는 곳이 전부 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각각의 스포츠로 지난 우리 광주를 일본 선수들에게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일본 선수단은 이번 훈련을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선수들과 광주를 찾아 훈련을 하고 싶다고 광주양궁협회에 초청을 건의했다.

또 다음 달에는 베트남에서 양궁선수단이 광주를 방문하며 11월 중순경에는 중국 상해에서 300여명의 양궁 동호인들이 광주국제양궁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 동호인들은 양궁선수가 아닌 순수한 일반시민들로서 양궁이 좋아서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들도 일주일간 광주에 머물면서 양궁 경기를 즐기며 쇼핑과 함께 관광명소를 찾아 지역

경제를 위해 많은 돈을 쓰고 갈 것이다.

광주국제양궁장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개최를 위해 건설된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양궁장이다. 이곳은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곳으로 국내대회는 물론 각종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많은 팀이 훈련을 위해 찾고 있다.

2015년에는 362명의 양궁선수단이 훈련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고 2016년에는 416명이 찾았다. 작년에는 1,620명의 선수들이 훈련을 위해 이곳을 찾아 꾸준히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년 부터는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와 양궁국가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후보선수단 훈련을 광주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어서 2020년 도쿄올림픽양궁대회를 위해 많은 해외 선수단이 일본과 가깝고 시차 적응이 좋은 광주국제양궁장을 찾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경기장을 건설한 후 각종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광주국제양궁장을 많이 찾는 이유는 훌륭한 양궁장 시설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춘 광주시청의 기보배 선수와 광주여자대학교의 최미선

선수와 함께 훈련을 할 수 있고 전국 최고의 기량을 갖춘 광주양궁선수단의 기량을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광주는 맛의 고향으로 먹거리가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기에 전지훈련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요즘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전국대회 유치에 적극적이다. 대회 기간 자연스런 지역 소개와 선수와 관계자들의 지역 체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광주양궁협회는 광주시체육회와 함께 '광주국제양궁장'이라는 지역 최고의 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 협회는 '양궁'을 매개로 민주화의 성지이자 수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예향 도시인 우리 광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풍요롭고 삶의 질이 향상된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장의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행사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뛰어 들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뿌리채 흔들리는 광주 교육 신뢰도

성희롱·성추행·시험지 문제유출 사건 등이 불거지며 광주교육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교직원 및 교사들과 연루돼 있는 탓이 크다. 지역 교단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탄식이 크게 와닿는다.

최근 불거진 모 여고의 성희롱 사건은 현 교단의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교사 다수가 제자 180여명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체 남교사 39명 중 15명 안팎이 수사대상이라니 충격적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16년도에 성추문 발생, 교사 2명이 타 학교로 전보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 동안 일부 교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학교 측

은 피해학생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니 화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도 교단 신뢰추락 사건의 대표적 단면이다. 광주 모 사립고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이 공모해 시험지 문제지를 빼돌린 사건이 그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학교 행정실장 등이 구속되긴 했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특히 빼돌린 시험문제가 복사본 형태로 학부모에게 전달됐다니 더욱 놀랍다.

일부 사학들의 도덕적 해이는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사학들은 철저한 대책보단 임시방편으로 불을 끄는데만 급급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전 전사학 보호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은 물론 투명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시스템 도입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대입개편, 단점 보완 혼란 최소화

최근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보면 수능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안이 팽팽히 맞섰다. 정시 확대 1안과 절대평가 2안이 각각 52.5%, 48.1%의 지지를 얻었다. 5백명 가까운 시민참여단이 합속까지 해가며 공론화 절차를 밟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셈이다.

1안은 현재 20%대인 수능전형 비율을 45% 이상 확대하는 안이다. 이 안은 수능의 변별력이 커지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암기 위주 교육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공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고, 특목고, 자사고, 강남권에 우수학생이 몰릴 수 있다.

반면 2안은 수능 공부 부담이 줄어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져 내신과 학생부 관리로 경쟁이 옮겨진다는 대입개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수능 변별력을 신뢰할 수 없어 대학별 고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1~2안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다.

시민참여단의 결론이 갈린 것은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증거다. 수능 위주 전형은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좋겠으나 45% 이상은 과도하다는 생각이고, 절대평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변별력 문제가 결될 수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의 생각이지만 쉽게 결론낸 사안이 아닌 셈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이 결과를 참고삼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넘긴다. 이제 교육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의 차례가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번에만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져 내신과 학생부 관리로 경쟁이 옮겨진다는 대입개편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독자광장 공중화장실 몰카 공포 차단한다

요즘 지하철 역사 내 공중화장실을 보면 여성들이 휴지와 실리콘을 들고 다니며 화장실 안에 뚫린 구멍을 스스로 매우고 있는 기이한 풍경을 보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가 매카 게시물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체를 몰카 구멍들을 보고 여성들은 '혹시 불법카메라가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공중화장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법촬영카메라란 무엇일까?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느 일선 경찰서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스티커를 배치해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됐을 것으로 의심이 들면 구멍을 발견했을 때 스티커로 막고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예전처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하지만 경찰의 예방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다면 공중화장실의 제 모습을 찾는데 하루빨리 다가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희원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호 사장 발행 편집인 김성모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이대호 논설실장 정정호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본사: 신문중앙로 322(중흥동, 삼신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자: 다원인쇄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Includes phone numbers for various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public information.